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한 아프리카의 위기극복과 발전에 관한 연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정치학 박사학위론문)

민주꽁고 롤랑 뻴레

사회적진보를 위한 정치사상과 전략적리론들을 옳바로 선택하는것이 중요한 요구로 제기되고있는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당연히 발전을 위한 리론과 전략을 다시 검토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세계적규모에서 사람의 생활과 운명 특히 아프리카의 운명을 명확히 규정하고 파악할것을 요구하고있다.

평화, 발전 그리고 자주화에 대한 요구는 의심할바없이 지구상 모든 민족의 커다란 관심사로 되고있어 오늘의 시대는 자주성의 시대라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세계정세를 안정시키려는 국제공동체와 지역집단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계에는 평화가 깃들지 않고있다.

오늘 아프리카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륙으로 되고있다. 아프리카는 공민전쟁, 국경분쟁, 부족들사이의 내전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있는 이 행성에서 가장 불행한 대륙으로 되고있다.

조선이 오늘의 복잡한 환경속에서도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며 국제공동체의 존중을 받고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주체사상은 강한 설득력을 가지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아프리카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룩할수 있는 지침이다.

론문에서 새롭게 해결하려고 한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아프리카대륙을 휩쓸고있는 아프리카의 재난과 그 원인에 대하여 해설론증하려고 한것이며

둘째로, 주체사상은 아프리카의 현위기극복과 발전의 지침일뿐아니라 자유롭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창조하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기 위한 진보적인류의 투쟁의 기치, 승리의 기치라는데 대하여 해설하려고 한것이며

셋째로, 사회주의조선은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모든 분야에서 세인을 경탄시키고 인류의 희망으로 되고있다는데 대하여 해설하려고 한것이며

넷째로, 주체사상연구보급사업이 심화될수록 아프리카의 발전과 번영이 더욱 다그쳐지게 된다는데 대하여 해설론증하려고 한것이다.

론문의 장, 절체계는 다음과 같다.

제 1 편에서는 아프리카의 위기에 대한 분석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 1 장에서는 아프리카에 대한 서론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 1 절에서는 아프리카를 지정학적 및 력사적으로 해설하였다.

론문의 이 부분에서는 아프리카의 지리적위치, 수력자원 및 기후, 인구통계와 보건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적도의 량쪽에 위치하고있으며 동쪽으로는 인디아양과 홍해와, 북쪽으로는 지중해와, 서쪽으로는 대서양과 경계를 이루며 아시아와는 수에즈운하에 의해, 유럽과는 지브랄타르해협에 의해 갈라져있는 아프리카는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대양주와 함께 세계 5 대륙의 하나이다.

기후적측면에서 아프리카는 다양한 기후조건을 가지고있다.

지리학적으로 아프리카는 풍부한 수력자원과 다양한 기후조건으로 하여 자기 발전의 거대한 잠재력을 가지고있다. 게다가 수많은 언제들과 저수지들이 건설되여 관개와 전력생산에 필요한 물을 대주고있다.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연 및 인공수력자원을 가지고있으며 세계수력자원의 약 40%를 차지하고있다.

아프리카인구는 세계인구의 20%를 오르내리고있다. 아프리카의 주민들은 주로 사하라이남지대와 북아프리카에 집중되여있다.

제 2 절에서는 아프리카의 정치적, 행정적구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론문의 이 부분에서는 아프리카나라들은 오랜기간의 반제반식민주의투쟁을 통하여 독립을 이룩하게 되였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각이한 아프리카정책, 아프리카의 위기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 1 절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각이한 아프리카정책에 대하여 개관하였다.

론문의 이 부분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의 아프리카에서의 식민지정책에 대하여 력사적으로 해설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식민지정책, 서방의 신식민주의정책, 침략전쟁과 분렬정책, 경제정책, 구조조종정책, 세계화와 전체화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 2 절에서는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의 후과와 아프리카의 위기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아프리카의 위기의 주요형태들로서 정치적위기, 경제적위기, 문화 및 도덕적위기, 종교적위기에 대하여서와 아프리카의 원인들, 아프리카의 위기가 지속되는 요인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아프리카의 현실에 적응되지 못한 정치사상들 아프리카에 적용된 정치사상들은 대체로 아프리카의 현실에 맞지 않는 외국의 모델을 본딴것들이였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무턱대고 받아들인 사상은 아프리카현실에 적응될수 없다.

아프리카는 적들이 군사적으로 충분히 무장하고있는데도 자체방위를 위한 군사적요구를 무시하고 군사전선과 그 구성요소들을 제쳐놓았다.

제국주의의 침략위험이 더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백히 있을수 있는 국제적현실로 되고있는 오늘 군사문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로 되고있다.

혁명과 건설의 주체를 똑바로 규정하고 혁명의 주체에 대한 리해를 정확히 가지도록 하는것은 아프리카사람들이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승리할수 있게 하는 필수적요구이다.

제 3 장에서는 아프리카의 위기를 해소하고 아프리카나라들의 발전을 위해 기울인 아프리카인들이 내놓은 사상과 노력들가운데서 필요에 따라 범아프리카주의와 꽁고민족주의에 대하여, 꽁고에서의 투쟁에 대하여서만 해설하였다.

제 1 절에서는 아프리카의 위기극복과 발전을 위해 아프리카인들이 내놓은 사상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론문의 이 부분에서는 범아프리카주의의 유래와 사상적내용, 꽁고민족주의, 범아프리카주의의 약점들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범아프리카주의의 중심에는 아프리카의 첫 독립국가인 가나의 초대대통령이였던 쿠와메 느크루마가 서있다. 1957 년에 황금해안은 영국의 식민지통치에서 벗어난 첫 아프리카나라로 되였으며 느크루마의 해방에 관한 사상은 매우 빨리 가나의 국경을 벗어났다.

1943 년에 그는 반식민주의적인 첫 소책자 《식민지해방을 위하여》를 발간하였는데 그 글에서 그는 아프리카의 예속을 폭로하였다.

아프리카의 통일에 대한 그의 사상은 수많은 신봉자들을 키워냈다.

그 대표적인 인물들로서 케니아의 대통령 조모 케니아타와 꽁고의 첫 민족적영웅 빠뜨리스 이메리 루뭄바를 들수 있다.

느크루마의 이름은 장차 황금해안뿐아니라 전아프리카대륙에서 급진주의의 상징으로, 아프리카통일의 동의어로 되였다. 1963 년에 그는 아프리카통일기구의 창시자의 한 사람으로 되였다.

《민족애》로 알려지고 때로는 열광적인 애국주의로 표현되는 꽁고민족주의는 군사적충돌, 사회혁명, 종교혁명 등 여러가지 형태의 투쟁을 추동한 하나의 정치사상이다.

꽁고민족주의는 민족적독립을 이룩하고 정신적비식민주의화와 국가

건설시작을 위해 꽁고의 엘리트들의 사상정치적노력의 산물로 분석된다.

범아프리카주의에 기초하여 1963 년에 아프리카통일기구가 창설되였지만 아프리카는 아직도 자기의 통합을 실현하지 못하고있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범아프리카주의가 정확한 원리에 기초하지 못하고있고 아프리카의 위기극복을 위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것이 중요한 원인이다.

제 2 절에서는 아프리카의 위기극복과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인들의 투쟁을 꽁고에서의 투쟁을 통하여 해설하였다.

론문의 이 부분에서는 꽁고에서의 제 1 공화국, 제 2 공화국, 제 3 공화국의 력사 즉 꽁고현대화과정에 대하여 해설하면서 현대화혁명과 모든 발전정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는 관건적열쇠는 어디에 있는가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루뭄바는 아프리카의 독립을 위하여 벨지끄에서 여러차례의 정치협상을 가지고 여러차례의 범아프리카회의에 참가한 후 그는 어렵고도 복잡한 조건속에서 꽁고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는데 성공하였다.

꽁고에서 제 2 공화국의 력사는 모부투대통령과 없어진 인민혁명운동의 력사이다.

1930 년 10 월 14 일 꽁고 에꽈뙤르도의 리쌀라에서 출생한 모부투는 1965 년 11 월 24 일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았으며 카사부부대통령과 루뭄바수상을 몰아내고 제 2 공화국을 수립하였다.

로랑 데지레 까빌라는 제 3 공화국의 창건자이며 루뭄바의 뒤를 이은 민족적존엄의 수호자이다.

1939 년 11 월 27 일 모바에서 출생한 로랑 데지레 까빌라는 1997 년 5 월 17 일부터 2001 년 1 월 16 일 암살될 때까지 꽁고민주주의공화국의 대통령이였다.

제 2 편에서는 아프리카의 위기극복과 발전의 길을 밝혀주는 주체사상은 아프리카의 위기를 극복하고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는 투쟁의 지침, 투쟁의 교과서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 1 장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이 지녀야 할 주체의 세계관에 대하여 해설하려고 한다.

론문의 이 부분에서는 아프리카인들에게 사람의 본질적특성과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되는 세계에 대한 정확한 견해를 준 과학적인 세계관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주체사상은 자주성, 창조성, 의식성을 가진 사회적존재로서의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새롭게 밝혔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본질적특성을 새롭게 밝히고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해명한데 기초하여 세계에 대한 사람중심의 견해, 관점과 립장을 밝혔다.

세계가 사람에 의하여 지배되고 개조된다는것이 세계에 대한 사람중심의 견해이다.

주체사상은 세계의 변화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준다.

사람에 의한 세계의 지배와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은 세계가 사람의 적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방향으로, 사람의 발전에 맞게 개변된다는것이다.

주체사상은 사람의 리익으로부터 출발하여 모든것을 대하고 사람의 활동을 기본으로 하여 모든 변화발전에 대하는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을 밝혔다.

주체사상은 사람을 단순히 물질세계의 한 부분으로가 아니라 세계의 지배자, 개조자로 내세우고 사람을 중심에 놓고 세계의 본질과 그 지배와 개조발전의 합법칙성을 독창적으로 밝힘으로써 세계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확립하였다.

제 2 장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이 지녀야 할 사회력사관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중심의 관점과 립장에서 사회적운동의 주체는 인민대중이며 사회력사적운동은 인민대중의 자주적, 창조적, 의식적운동이며 사상의식이 결정적역할을 한다는 사회력사원리를 밝혔다.

사상의식이 모든것을 결정한다는것은 사람의 행동을 규정하는 결정적요인이 사상의식이라는 뜻이다.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의 발전, 그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이며 의식적인 활동이 강화되는데 따라 사회가 높은 단계에로 발전해나가는것이 사회발전의 합법칙적과정이라는데 대하여 밝혔다.

제3장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이 지녀야 할 주체의 혁명관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론문의 이 부분에서는 주체사상은 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혁명운동의 본질과 기본내용, 근본원리, 혁명승리의 근본요인과 혁명의 발전단계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해설하였다.

사회적운동의 가장 높은 단계로서의 혁명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적인 투쟁이다.

혁명운동의 기본내용을 이루는것은 무엇보다먼저 낡은 사회제도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사회제도를 세우는것이다.

혁명의 기본내용을 이루는 다른 하나는 사상, 기술, 문화분야에서 낡은것을 새것으로 바꾸는것이다.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의 근본원리는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것이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이라는것은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을 맡아 수행할 권리와 책임을 지닌 직접적담당자라는것이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승패를 결정하는 근본요인에 대해서도 밝히였다. 혁명의 승패를 결정하는 근본요인은 주체에게 있다. 혁명의 주체의 위력이 강화되고 그 역할이 높아지는데 따라 혁명운동이 승리적으로 전진하는것이 합법칙적이다.

주체의 혁명관은 혁명의 주체에 대한 과학적해명에 기초하여 혁명적수령관과 함께 혁명적조직관, 군중관을 혁명의 주체에 대한 관점과 립장에서 독자적의의를 가지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로 제기하고 그에 독창적인 해명을 주었다.

인민대중이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면 당조직과 당의 령도를 받는 사회정치조직들에 대한 옳바른 관점과 립장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조직관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조직에 철저히 의거하고 조직의 지도와 통제밑에서 사업하고 생활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을 존중하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가자면 군중에 대한 옳은 관점을 가지고 군중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는 혁명적군중관을 가져야 한다.

혁명적군중관을 세우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대중의 힘을 믿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해나가는것이다.

주체사상은 혁명의 주체를 이루는 수령, 당, 군대와 인민은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혁명의 승리를 이룩해나간다는데 대하여 밝혀준다.

혁명적도덕관은 혁명적량심에 기초한 사람들의 행동규범인 혁명적도덕을 사회적인간의 가장 참다운 도덕으로 보고 지켜나가는 관점과 립장이다.

혁명적도덕관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우선 사회정치적집단의 리익을 자기 개인의 리익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집단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여기는것이다.

혁명적도덕관을 확립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또한 사람들이 집단안에서 평등한 자격을 가지고 동지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는것을 도덕적의무로 여기는것이다.

제４장에서는 아프리카인들이 사회발전에서 견지해야 할 지도적원칙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론문의 이 부분에서는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지침은 자주적립장을 견지하고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며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자주적립장을 지키기 위하여서는 사상에서, 주체, 정치에서 자주, 경제에서 자립, 국방에서 자위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한다.

창조적방법을 구현하는 원칙은 인민대중에 의거하는 방법과 실정에 맞게 하는 방법을 내용으로 하고있다.

사상을 기본으로 틀어쥐고나가는 원칙은 사상개조선행과 정치사업선행의 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고있다.

주체사상이 밝힌 혁명과 건설의 지도적원칙은 아프리카나라들의 혁명적당과 국가가 편향이나 탈선이 없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갈수 있게 하는 백전백승의 지침이다.

제 3 편에서는 아프리카의 위기극복과 발전을 위한 투쟁을 고무추동하는 주체의 나라 사회주의조선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 1 장에서는 사회주의조선이 정치사상적위력과 군사적위력을 떨치는 나라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제 1 절에서는 정치사상강국으로 존엄떨치는 조선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국력에서 기본이 정치사상적위력인것만큼 강국의 첫째가는 징표는 정치사상적위력이다.

정치사상적위력이 국력중의 제일 국력으로 되는것은 정치가 사회발전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분야이며 그 한계를 모르는 사상의 위력이 나라와 민족의 발전과 번영의 담보로 되기때문이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는 이민위천의 숭고한 정치리념과 높은 정치실력, 강철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시고 자주정치를 하시였다. 하여 당의 정치적지반을 굳건히 다지고 나라의 존엄을 높였으며 그 위력을 비상히 강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교조와 사대를 배격하고 독

창적인 자주정치를 해오시였다.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인민의 자주적권리와 리익, 혁명의 리익을 우선시하신 그이의 자주정치에 의해 당의 사회정치적지반이 공고히 다져지고 조선은 사대와 굴종으로 얼룩진 수난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자주, 자립, 자위의 나라로 우뚝 솟아오르게 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선군정치방식을 내놓고 실행하시여 현대 자주정치의 산모범을 보여주신 탁월한 정치가이시다.

드놀지 않는 정치신념을 지니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에 당은 절대로 인민을 배반할수 없다고 하시며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 자주의 길,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드시였다.

걸음걸음 희생을 동반하는 선군의 길에서 그이께서는 인민의 생명이고 생활인 사회주의를 지키고 나라의 공고한 평화와 부강번영, 인민의 무궁한 행복을 위한 만년토대를 쌓으시였다.

나라와 민족의 최고리익을 지키고 번영의 토대를 마련해가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가장 철저한 자주정치, 선군정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이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뜻을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자주, 선군, 사회주의를 조선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으로 규정하시고 자주정치를 펼치시여 조선이 세계정치무대에서 존엄높은 정치강국으로서의 권위와 영향력을 당당히 행사하도록 하신다.

조선이 세상에 유일무이한 정치사상강국으로 될수 있은것은 조선로동당이 자주정치와 함께 이민위천의 인덕정치를 베풀기때문이다.

조선이 정치사상강국으로 될수 있은것은 당이 인민대중의 요구와 지향을 반영한 자주사상을 내놓고 대내외적으로 그들의 자주적권리와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이 요구와 지향을 실현시켜주는 자주정치를 시종

일관 실시하였기때문이다. 이와 함께 인민들 모두를 한없는 사랑과 정으로 품어주고 보살펴주는 인덕정치를 실시하였기때문이다.

조선은 전체 인민이 자주의 사상,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의 두리에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친 사상강국이다.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세계는 세인을 경탄시키는 충정의 세계를, 많은 나라들이 이루고싶어도 이루지 못하였던 정치사상강국건설의 꿈을 현실로 펼치였다.

제2절에서는 조선은 군사강국의 면모를 다 갖춘 불패의 나라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강한 군사력이 없이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생존권, 사회주의를 지켜낼수 없는것은 물론이요 강국건설도 성과적으로 할수 없다.

조선은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을 가진 군사강국이다.

조선에서는 혁명군대의 첫째가는 풍모를 정치사상적풍모로 보고 창건 첫날부터 군인대중을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준비시키기 위한 사상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렸다.

조선은 인민군대의 정치사상적위력과 함께 그들의 군사기술적위력을 강화하기 위한데도 언제나 힘을 넣었다.

조선은 전민이 무장하고 전국이 요새화된 불패의 군사강국이다. 조선에서는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들의 필승의 군사전법과 기술로 무장하고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하나의 군사적력량으로 조직화되여왔다. 나라의 모든 지역, 모든 지대는 난공불락의 요새로, 방어진지로 튼튼히 꾸려졌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다져놓으신 자립적국방공업의 토대에 의거하여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선군정치로 나라를 군사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워주시는 민족사적위업을 이룩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재적인 지략과 강인담대한 담력과 배짱, 정력적인 령도하에 조선의 국방력강화에서 경이적인 성과들이 다계단으

로, 련발적으로 이룩되였다.

제 2 장에서는 경제강국, 문명강국을 지향하는 나라 사회주의조선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조선이 건설하고있는 사회주의강국은 국력이 강하고 끝없이 륭성번영하며 인민들이 세상에 부럼없는 행복한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천하제일강국이다.

조선이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을 완성하자면 정치군사강국의 지위를 공고히 하면서 경제강국과 과학기술강국, 문명강국을 건설하여야 한다.

제 1 절에서는 경제강국건설에 힘을 넣고있는 조선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조선에서는 이미 마련된 자립경제토대에 의거하여 경제발전을 다그쳐 나라의 경제를 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울 구상을 펼치고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있다.

경제강국건설에 박차를 가하여 국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고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가져오고있다.

조선에서는 경제발전에 힘을 넣어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를 쌓았다.

조선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부강조국건설과 인민생활에 필요한 중공업과 경공업제품, 농업생산물을 기본적으로 자체로 생산보장할수 있는 다방면적인 경제구조, 원료생산으로부터 완제품생산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생산공정을 종합적으로 갖춘 경제이다.

조선에서는 경제의 자립성보장, 주체화실현에서 주되는 힘을 경제의 다방면적이며 종합적인 구조완비와 함께 원료, 연료, 설비의 국산화에 넣었다.

조선에서는 모든 생산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는것을 인민경제의 현대화, 정보화실현의 전략적목표로 내세우고있다.

조선에서는 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과학과 생산이 밀착되는 세계적추세에 맞게 경제의 현대화, 정보화를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조선에서는 경제강국을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당면하여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을 수행하고있다.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의 목표는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경제부문사이 균형을 보장하며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것이다.

제2절에서는 과학기술강국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선차적으로 점령하여야 할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있는 조선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과학기술강국건설의 목표는 가까운 앞날에 종합적과학기술력에서 세계적으로 앞선 나라들의 대렬에 당당히 들어서는것이다.

이 목표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선에서는 과학기술부문에서 첨단돌파전을 힘있게 벌리고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도록 하며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다그쳐 최근년간 수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을 이룩하였다.

무엇보다먼저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세계적경쟁력을 가진 기술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자랑찬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이 경제강국건설에서 기관차의 역할을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담보해주는 많은 과학기술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조선에서는 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중요한 문제로 틀어쥐고나가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발전에서 커다란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또한 원료와 연료, 설비의 국산화를 실현하는것과 함께 먹는 문제, 에네르기문제와 동력문제해결을 위한 과학연구사업에서도 큰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조선에서는 나라를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려세우기 위하여 인재

를 중시하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해나가고있다.

조선에서 과학기술성과들을 끊임없이 이룩하고있는 근본비결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과학중시사상과 현명한 령도, 과학자들에게 돌려주시는 은정과 배려가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다.

제 3 절에서는 문명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조선이 건설하는 문명강국은 전체 인민이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사회주의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참다운 문명강국이다.

조선에서의 문명강국건설은 전체 인민을 풍부한 지식과 높은 문화적소양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의 힘있는 담당자로 키우며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마음껏 누릴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리상과 그 실현을 위한 그이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오늘 조선인민은 문명강국건설에서 전례없는 성과를 이룩하고있다.

우선 교육과 문학예술발전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있다.

교육부문에서 혁명의 요구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조건과 환경이 끊임없이 개선되여 강국건설을 떠메고나갈 유능한 인재들이 수많이 자라나고있다.

조선의 문학예술부문에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사상정신적량식을 주고 그들을 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훌륭한 소설과 시, 영화문학, 극문학작품들을 많이 내놓기 위한 창작전투를 힘있게 벌리고있다.

또한 체육과 보건부문에서도 큰 성과들이 이룩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남다른 관심과 정력적인 지도하에 체육발전을 위한 국가적조치들이 취해지고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휘몰아치게 되였으며 나라의 체육이 눈부시게 발전하고있다.

축구를 비롯한 유술과 레스링, 권투, 륙상, 교예체조, 짧은 주로속도

빙상, 물에 뛰여들기 등 여러 종목에서 아시아선수권보유자들, 국제경기금메달수상자들이 련이어 배출되여 세계를 향해 돌진하는 주체조선의 체육수준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보건부문에서는 인구의 평균수명과 전염병예방률을 비롯한 보건지표들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며 인민들에게 보다 위생문화적인 생활조건과 환경을 마련해주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있다.

문명강국의 체모에 맞는 현대적인 문화정서생활기지들을 세계첨단수준에서 더 많이, 더 훌륭하게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이 벌어지고있다.

평양시를 주체조선의 수도답게 더욱 웅장하고 풍치수려한 도시로 만들며 모든 도, 시, 군들에서 거리와 마을, 조국산천을 사회주의선경으로 꾸리는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있다.

평양시에 창전거리가 새롭게 일신되고 사회주의선경의 본보기인 은하과학자거리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일떠섰고 중앙동물원이 새롭게 개건되였으며 수십개의 공원이 새로 꾸려지고 도시록화에서 새로운 전진이 이룩되고있다.

제4편에서는 아프리카의 위기극복과 발전을 위한 방도에 대하여 해설하였다.

아프리카가 위기에서 벗어나 발전을 이룩하는 문제는 제국주의의 신식민주의기반에서 벗어나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대륙의 자주권을 되찾는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로 하여금 실천에서 그 혁명성과 과학성, 정당성과 생활력이 확증된 위대한 주체사상을 연구하고 우리의 투쟁방도를 찾게 한다.

제1장에서는 아프리카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프리카인들속에서 방법론을 가지고 주체사상선전보급을 진행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우리 시대의 인류자주위업의 위대한 기치는 주체사상이다.

우선 지식인들이 주체사상에 접하여 그에 대한 리해를 깊이 하도록 하며 주체사상에 대한 연구 및 해설선전사업에 많은 지식인들이 망라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아프리카인민이 한마음으로 나라와 민족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전문국가기구를 내오고 정확한 방법으로 사상교양을 하여야 한다.

또한 주체사상선전사업을 여러 계층속에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해야 한다.

또한 주체사상연구조직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 역할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제 2 장에서는 아프리카가 위기에서 벗어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들이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여야 한다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옹호고수하고 구현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 다당제민주주의를 반대하고 인민의 대표들로 구성된 정당을 건설하고 강화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를 확고히 보장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혁명적인 정권을 세우고 정권의 기능과 역할을 높이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사적소유를 집단적소유로 발전시켜나가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는것이다.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에 맞게 사회를 건설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다음으로 대외관계에서 자주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정치에서 자주성을 견지하는것은 아프리카나라들의 민족적독립과 자주권을 고수하며 자기 인민의 의사와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세우고 철저히 관철하여 아프리카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중요방도로 된다.

제 3 장에서는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아프리카의 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방도는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을 견지하는것이라는데 대하여 해설하였다.

군사중시, 군사선행이 아프리카의 위기극복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방도로 되는것은 군사가 혁명의 승패와 나라와 민족의 흥망을 좌우하기때문이다.

군사중시, 군사선행은 아프리카의 현조건에서 더우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선군으로 조선이 올라선 전략적지위, 조선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륙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찾아야 한다.

아프리카의 나라와 민족들이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도 민족군대를 창설하고 군대를 정치사상적으로 잘 준비시키는것이다.

아프리카의 나라와 민족들이 군사중시, 군사선행의 원칙을 견지하는데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자위적인 국방공업을 건설하는것이다.

제4장에서는 세계진보적인민들이 자주성에 기초하여 굳게 단결할데대하여 해설하였다.

아프리카나라들을 분렬리간시켜 통치하려는 미국과 서방제국주의자들의 전략에 아프리카나라들은 단결의 전략으로 맞서야 한다.

아프리카나라들이 독립을 이룩하고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는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수 있은것은 나라들이 서로 협조하고 단결하여 투쟁하였기때문이다.

우선 매개 나라와 민족들이 자기 식의 길을 선택하고 걸어나가는것을 호상 리해하고 긍정하며 적극 지지해주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려야 하며 경제발전을 위한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

아프리카나라들이 정치적독립을 공고히 하여야 한다.

또한 민족리기주의를 반대하고 제국주의자들의 분렬리간책동을 배격하여 투쟁함으로써 반제자주력량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며 공동의 번영을 이룩해나가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아프리카나라들과 민족들의 단결과 협조에 아프리카의 위기극복의 출로가 있고 발전의 진로가 있다.